

국별 리포트

에티오피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1,222천 km ²	G D P	266억 달러 (2010년)
인구	8,498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313 달러 (2010년)
정치체제	연방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irr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환율(달러당)	14.41 (2010년)

-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지부티와 소말리아(동), 수단(서), 케냐(남), 에리트리아(북)와 접하고 있고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이집트에 이어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약 8,500만 명)임.
- 1인당 GDP가 313달러에 불과하고 UN 인간개발지수가 169개국 중 157위에 그치고 있으며, 대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 저개발국임.
- 1941년 독립 이후 사회주의 군부 정권 하에서 다수의 국경 분쟁과 내전을 겪으며 가뭄 및 사회주의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였음.
- 에티오피아는 내각이 정치 실권과 국군통수권을 지니고 있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민혁명민주노선당이 1991년에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이후 2010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장기 집권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1년 경제성장률 소폭 상승 전망

-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증가와 이에 따른 농산품 가공업의 호조, 원조국의 공여를 기반으로 2007~08년에는 연간 11%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09~10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해외 근로자의 국내 송금액도 감소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은 각각 10%와 8%로 감소 폭이 크지 않았음.
- 2011년에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 작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 지속

-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GDP 대비 세수 기반이 아프리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하여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국제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성장률	11.8	11.2	10.0	8.0	7.5
재정수지/GDP	-3.6	-2.9	-0.9	-1.3	-2.1
소비자물가상승률	17.2	44.4	8.5	8.1	18.1

자료: IMF

* 에티오피아의 회계연도는 7.8~7.7로 재정수지는 매년 7월 7일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 국제원조에 의한 재정수입을 제외하면 재정수지 적자가 추가적으로 GDP 대비 약 4~5%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007년에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6%를 기록한 이후 긴축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GDP 대비 0.9%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제성장 둔화로 긴축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GDP 대비 1.5%로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되었음.

○ 2011년에도 정부 주도의 개발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2.1%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전망

○ 2007~08년에는 국제 식품가격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17.2%, 44.4%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경험하였음.

○ 2009~10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식료품 및 원유 가격 하락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대로 하락하였음.

○ 2011년에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 작황 악화, 국제 식품가격 및 유가 상승, 유동성 확대 및 비르(Birr)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1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농업부문이 총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연간 강수량, 농산물의 국제가격 시세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2009년): 농업 45%, 광업 및 제조업 13%, 서비스업 42%

- 최대 수출품목은 커피로 전체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나, 국제 커피가격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대폭 감소되어 2009년에는 총수출액 16억 달러 중 커피 수출액이 4억 달러로 25%에 불과하였음.

□ 열악한 농업환경

-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고산 지대에서만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며, 관개시설 부족으로 강수에 의존하고 있어 고질적인 가뭄,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하천 범람 등의 영향으로 농업 작황의 변동성이 높음.

- 총 경작가능면적이 8,500만 ha로 국토의 68%에 달하나, 이 중 1,600만 ha만이 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초지로 이용되고 있음.

- 농업부문의 성장 가능성은 크나 열악한 농업환경으로 효율성이 높지 않고 작황의 변동성이 심해 식량자급률이 10% 전후에 불과하며, 매년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개시설 확장, 경작기술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임.

□ 숙련된 노동인력 부족

- 총 인구의 약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된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발달이 부진한 실정임.

- 2008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식자율이 30%에 불과하고, 15~24세 여성의 식자율이 33%, 15~24세 남성의 식자율이 56%로 추정되는 등 높은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음.

나. 성장잠재력

□ 광물자원 개발 가능성

- 금, 동, 아연 등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천연가스전도 2개 지역 (매장량 4조 입방피트)이 발견되었으며, 수단의 유전지대가 에티오피아 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에티오피아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 업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최대 금 광산인 Lega Dembi 광산의 20년간 채굴권이 사우디 회사에 낙찰되었고 수단과 접경해 있는 오가덴 지역 천연가스 탐사는 말레이시아계 Petronas 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Calub과 Hillala 가스 전에서는 중동계 회사인 SIL사가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 하기도 하였음.
- 석유매장 가능 지역은 오가덴, 아바이강, 메켈레, 감벨라, 남부 지구대의 5개 지역이며, 에티오피아 광산동력부와 네덜란드 석유탐사회사 PEXCO는 소말리주 오가덴 지역의 석유탐사 및 개발에 대해 합의하였음.

□ 농업 개발정책 추진

- 농업은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출품 역시 커피, 사탕수수 등의 농산품이 차지하고 있는 등 에티오피아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으로 정부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생산 증가를 위해 농업 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부가 농업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2012~13년 농업 부문의 성장률이 연간 8%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책성과

□ 5개년 개발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시행 중

- 정부가 2010년에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GTP: 2011-15)을 발표하고 5개년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동 계획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농업 및 제조업 개발과 인프라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기간 중 농업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4.9%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1년 9월에 World Bank는 에티오피아의 5개년 개발계획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음. World Bank가 지원하는 주요 5개 분야는 인프라 개선, 민간부문 개발, 보건 및 교육 개선, 기후변화의 영향, 국정운영체제이며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음.
- 5개년 계획 중 8.3만 km의 도로건설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89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World Bank의 지원은 개발계획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전력시설 확충

- 수력발전 잠재력이 약 65,000MW로 추산되나, 현재 이 중 2.5% 미만만 개발된 상황임.
- 정부가 전력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Gilgel-Gibe II 발전소와 테케제담(Tekeze Dam) 등 10개 지역의 수력 발전소에서 총 1,382.6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수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전력생산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0년 1월에 가동을 개시한 Gilgel-Gibe II 발전소는 동국 최대 규모로 42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09년 말에 전력생산을 개시한 테케제담은 300MW 규모의 발전 능력을 갖추고 있음.
- 4개의 수력 발전소(2,427MW)가 공사 중에 있고, 6개의 수력 발전소(2,864MW)가 건설 준비 중임.
- 최근 건설된 수력발전소가 사고 및 운영미숙으로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전력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능력이 향상되고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주변국가로 전력을 수출하여 대외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적자 지속

- 경상이전수지는 국제원조,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 확대 등으로 연간 30억~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식료품, 석유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기계설비 등 소비재와 자본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 2008년에는 국제 식품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상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7%로 확대되었으며, 2009~10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해외거주자의 송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7.7%, 7.9%로 확대되었음.
- 2011년에는 해외송금 유입 및 국제원조 증가 등으로 경상이전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6.1%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828	-1,806	-2,191	-2,104	-1,603
경 상 수 지 / G D P	-4.3	-7.0	-7.7	-7.9	-6.1
상 품 수 지	-3,871	-5,652	-5,281	-5,276	-5,696
수 출	1,285	1,555	1,538	1,716	2,240
수 입	5,156	7,206	6,819	6,992	7,936
외 환 보 유 액	1,278	859	1,742	1,808	2,043
총 외 채 잔 액	2,620	2,879	4,990	5,848	6,627
총 외 채 잔 액 / G D P	13.7	11.1	17.5	22.0	25.4
D . S . R .	5.2	2.6	3.0	3.9	3.5

자료: IMF, EIU, OECD

□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 외환보유액은 2009년 8월에 IMF의 외부충격기금(Exogenous Shocks Facility: ESF) 지원 결정 및 원조공여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18억 달러로 2008년(8.7억 달러)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외부충격기금: 외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으로 저소득국의 국제수지 균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IMF가 지원하는 양허적 성격의 기금임.

-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외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경제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3개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총외채잔액 증가 추세

- 2004년에 HIPC Completion Point 달성으로 13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 받은 이후 2007~08년에는 30억 달러 미만의 총외채잔액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비르(Birr)화 가치 하락 및 IMF의 외부충격기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총외채잔액이 50억 달러로 급증하였음.

- 2010년에도 비르(Birr)화 약세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면서 총외채잔액이 56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도 6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총외채잔액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외채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1.1%에서 2010년에는 22.0%로 증가하였음.

III.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인민혁명민주노선당의 2010년 총선 압승에 힘입어 정치적 안정 지속 전망

- 군부를 중심으로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 TPLF), 암하라민족민주운동(Amharar National Democratic

Movement: ANDM) 등이 연합하여 결성된 인민혁명민주노선당 (EPRDF)은 1991년에 멩기스투(Mengistu)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20년간 장기집권하고 있음.

- EPRDF는 2005년 총선에서 의석 수가 중선보다 감소하였고 부정선거에 반발한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연간 10%에 가까운 고도성장 달성에 힘입어 2010년 총선에서는 압승을 거두었음.
 - EPRDF는 2005년 총선에서 547석 중 327석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 총선에서는 547석 중 499석을 차지하였음.
-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은 사실상 의회 정치에서 배제되어 세력이 매우 미미하며, 집권 여당인 EPRDF가 테러리즘방지령(Anti-Terrorism Proclamation)을 근거로 언론을 장악하고 야당 및 비정부기구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견제세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임.
-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총리는 1991~1995년에 과도정부의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후 1995년부터 현재까지 EPRDF의 지도자로서 총리직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국정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2010년 총선 이후에는 총리로서 4선 임기를 시작하여 2015년까지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멜레스 제나위 총리는 2010년 9월에 EPRDF의 4개 당 중 2개 당의 대표를 자신의 측근으로 임명하였으며, 매년 각료급 인사들을 신세대로 교체한 후 2015년에는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열악한 생활환경

- 2010년에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총 169개국 중 157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보건 및 의료 시설 부족으로 2009년을 기준으로 한 평균수명은 58세에 불과하고 인구의 46%만이 보건 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이 장티푸스, 말라리아, AIDS/HIV 등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

-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 상태이고 5세 이하 어린이의 47%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뭄으로 인해 식량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음.

□ 사회불안 요인 잠재

- 에티오피아는 오로모족(32%), 암하라족(30%), 티그레이족(7%) 등 80여개 이상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족 간 갈등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음.
 - 오로모 해방전선(OLF) 등은 종족에 근거한 지방 분권주의 채택을 주장하며 소수 종족인 티그레이족의 권력 집중에 반발하여 대정부 무력투쟁을 전개하였음.
- 2005년 총선 직후에는 부정선거 등에 반발하여 발생한 시위대를 정부가 강경진압하면서 200여 명이 사망하였고, 2011년 1~6월에는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 및 지방 도시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과정에서 경찰 등 보안군의 발포로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였음.
- 2011년 8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0.6%를 기록하는 등 열악한 생활 환경이 지속되면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찰 등 보안 시스템이 강력하여 중동 민주화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3. 국제관계

□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은 교착상태

- 1993년에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에서 분리 독립한 후 1998년에 국경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2000년 12월에 Algier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종결되었음.
 - 종전 후 UN 평화유지군(UN Mission in Ethiopia and Eritrea: UNMEE)이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에리트리아 영토 내에 임시안전지대(TSZ)를 설치하고 에티오피아군의 철군 절차를 진행하였음.

- 2000년에 평화협정 체결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중립국경 위원회(Eritrea-Ethiopia Boundary Commission: EEBC)를 설립하였고 양국은 국경에 관한 EEBC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사전 합의하였음. 그러나 2002년에 에티오피아가 에티오피아에 속해 있던 Badme지역을 에리트리아령으로 확정하는 EEBC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국경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에리트리아 정부가 더 이상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둔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UNMEE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여 양국 간 국경 지대에 배치되어 있던 UNMEE의 임무가 2008년 7월에 공식 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군대의 직접 대치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 및 유럽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1991년에 멜레스 제나위 정권 출범 이후 친서방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역내 안정을 위한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등과 긴밀한 군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 ‘아프리카의 뿔’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부티가 자리잡고 있는 아프리카 북동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인도양과 홍해를 감시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 지역의 지형이 코뿔소의 뿔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 미국은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위기대응군(African Crisis Response Force) 훈련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1998년부터 훈련을 시작하였으며, 이라크전쟁 발발 시에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미국에 영공통과권 및 기지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음.
-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에티오피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도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원조를 지원하고 있음.

- EU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에티오피아에 약 7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영국, 이탈리아 등도 국가 차원의 대외 원조를 지속하고 있음.

- 최근 멜레스 정부가 야당 및 언론 인사 탄압을 위해 원조 금액을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원조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교역 통로로 지부티 항만 의존

- 내륙국인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리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에리트리아의 아사브(Assab)항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자 지부티를 통해 수출입 물류를 운송하고 있으며, 현재 양국 간 우호관계 속에 에티오피아 무역의 대부분이 지부티의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기타 주변국과의 관계

- 2006년 12월에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말리아 이슬람군벌(the Union of Islamic Courts : UIC)을 공격하여 UIC 소탕 작전을 수행한 바 있으며, 2009년에 에티오피아 주둔군 철군 이후에도 소말리아 내 정국상황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음.
- 남수단의 독립 이후 수단과 남수단과의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 등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분쟁지역인 Abyei 지역에 4,200명의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음.
- 에티오피아 정부가 나일강 지류에 수력발전을 위한 5,200MW 규모의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일강 사용을 둘러싸고 이집트와의 긴장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HIPC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탕감

- 2001년에 HIPC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2004년 4월에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면서 13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 받았음.

OECD 회원국 ECA 대한 외채상환 태도 양호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금액은 없음.(2011년 6월말 기준)
 - 단기: 총지원잔액 1,750만 달러(연체금액 없음)
 - 중장기: 총지원잔액 10.9억 달러(연체금액 없음)

2.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 관	종 전 등 급	현 행 등 급
OECD	7등급(2010. 10)	7등급(2011. 10)

- OECD는 2011년 10월에 국별신용도 평가전문가(CRE) 회의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이 최하위인 7등급으로 평가하였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3. 12. 23 (북한과는 1975. 6. 5 수교)
- 주요협정 : 경제기술협력협정(1992), 문화협정(1998), 무역협정(200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1), 무상원조기본협정(2011)
- 201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6,222만 달러이며, 2011년 9월 기준 교역규모는 1억 53만 달러임.

<표 3>

한 · 에티오피아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93,975	79,823	50,499	의약품,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수 입	3,859	14,796	11,722	커피류, 채유종일
합 계	97,834	94,619	62,221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2010년 우리나라의 대 에티오피아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36.7% 감소한 5,050만 달러,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20.8% 감소한 1,172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은 의약품,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커피류, 채유종일 등임.

□ 에티오피아의 6.25 전쟁 참전 이후 우호관계 유지

-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1개 대대병력, 총 6,037명을 파병한 바 있으며, 양국은 1963년 수교를 거쳐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멩기스투 공산정권 하에서도 기존의 우호, 협력관계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1991년에 공산 정권이 축출된 이후에는 양국 관계가 정상을 회복하였음.
- 2011년 7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하면서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음. 동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에티오피아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로 함.
 -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를 경제개발을 위한 모델로 인식하고, 우리나라로부터 개발 Know-how를 전수받기 위한 인적자원 훈련과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해외직접투자(2011년 6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2건, 189만 달러

- 2011년 6월 말 누적기준 에티오피아에 대한 총투자금액은 189만 달러로 미미한 편이며, 2010~11년 투자실적은 없음.

V. 종합의견

- 에티오피아는 2007~08년에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증가와 원조국의 공여를 기반으로 연간 11%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10년에도 경제성장률이 각각 10%와 8%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음.
- 2011년에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 작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2년에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력 공급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9~10년에 8%대로 안정되었으나 2011년에는 국제 식품가격의 상승 등으로 18.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10년에 GDP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011년에는 2.1%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 악화로 2009년에 IMF의 외부충격기금을 지원받으면서 외환보유액이 2008년 말 9억 달러에서 2010년 말 18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월평균 수입 대비 외환보유액 역시 2.3개월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외채상환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2010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인민혁명민주노선당이 압승을 거두고 제나위 멜레스 총리가 4선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 세력이 매우 미미하고 여당이 야당 및 비정부기구 인사들을 억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이현정 (☎02-3779-5724)

E-mail: lhj036@koreaexim.go.kr